

무궁화호 탈선 여파 서울행 지역민들 큰 불편

영등포역 탈선 34명 부상...호남·전라선 열차 무더기 운행 중단·지연 열차 몰린 광명역서 3시간 넘게 멈춰서 서울 회사 면접생 등 '발동동'

서울에 직장이 있는 오모(48)씨는 주말을 광주에서 보내고 7일 오전 9시 45분 광주승정역-용산역 KTX산천 410호 열차를 탔다가 낭패를 봤다. 열차가 광명역에 도착한 뒤로 3시간 넘게 멈춘 채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지연 시간을 안내해주는 커닝 상황을 정리해 주는 역무원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결국 다른 KTX 차량으로 갈아탄데, 열차 칸마다 돌아다니며 비상인터폰을 썼는데도 누구 하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모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 7일 오전 전북 익산역에서 서울역행 KTX 차량을 탑승한 김모(여·20대)씨는 울상이 됐다. 열차 출발 시간이 1시간이나 미뤄진데다 열차가 광명역에서 수시간동안 멈춰버린 것이다. 급히 회사에 전화를 했으나 "사정은 봐 줄 수 없으며 오후 1시 30분까지 무조건 오라"는 통보를 듣고 급히 광명역에서 하차했으나, 지하철은 중단되고 택시, 버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발만 동동 구울 수밖에 없었다.

7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용산역-영등포역 운행이 끊기면서 호남선, 전라선을 타고 서울을 가려던 광주·전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십대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예상 지연시간조차 공지되지 않았으며 비상인터폰마저 먹통이 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처가 혼란스러웠다든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은 당초 선로 복구작업을 7일 오후 1시 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탈선 차량 이동과 제거된 전차선·선로 보수 등 작업이 늦어

지면서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복구를 마쳤다.

그 여파로 7일 첫 차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전국 228편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거나 단축운행을 해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역과 영등포역에서는 모든 KTX와 일반열차가 정차하지 않도록 조정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출발한 호남선·전라선 열차들도 무더기 운행 중단 및 지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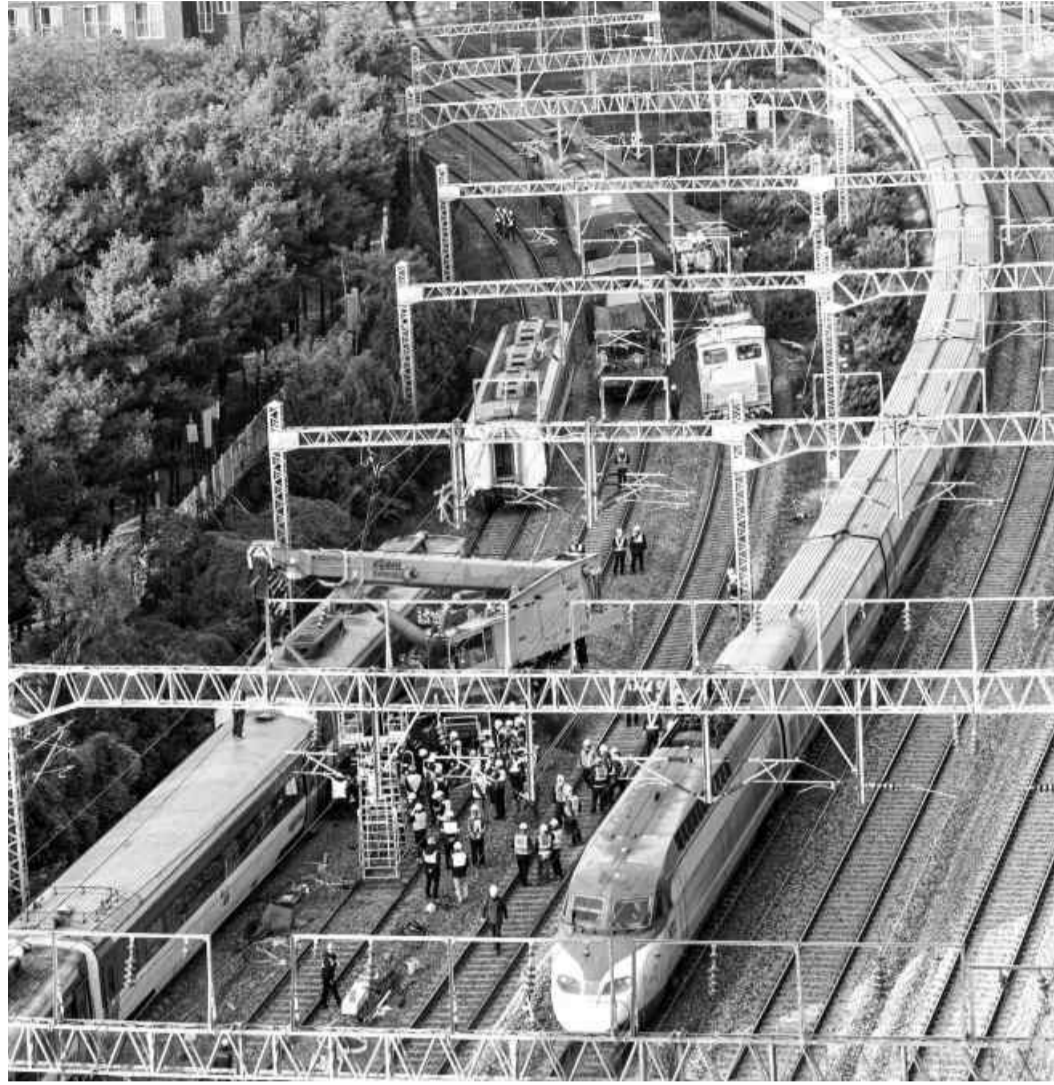
호남선에서는 KTX 47편 중 13편이 운행 중지됐으며 22편이 지연됐다. 일반 열차는 22편 중 8편을 운행 중단, 8편을 지연 운행했다.

전라선에서도 KTX 33편 중 11편을 운행 중지하고 19편을 지연 운행했으며, 일반 열차 중에서는 17편 중 6편을 운행 중지, 7편을 지연 운행했다.

특히 전라·호남·경부·경전선이 한 데 모이는 광명역은 열차가 몰리면서 최대 3시간까지 운행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역을 지나는 10시 55분 출발 서울역-여수엑스포역 KTX 509호 열차(호남선)는 3시간 31분까지 지연되기도 했다. 이밖에 호남선 무궁화호 1편, 전라선 KTX 1편이 3시간 이상 지연 운행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연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운행이 지연되는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에게는 운행 지연 사실을 안내 드린 뒤 승낙을 받아 발권했으며 다른 열차를 타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밤 8시 50분께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6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복구반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사고 현장에서 선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레일 105m, 선로전환기 3대 등이 훼손됐다.

코레일은 이날 새벽 3시부터 복구 작업을 시

작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노출 장면 담긴 영화 상영 교사 징계 정당”

광주지법 행정2부판결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3개월의 징계처분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평등 수업 중에 중학 1·2학년에게 영화 '역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남녀가 역할을 바꾸는 방법으로 성 불평등을 고발한 10분짜리 단편이다. 여성계에선 검증받은 작품이지만 영상 속 노출과 대사, 설정 등이 중학생한테 적합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검찰 결정과는 별개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교사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고, 수업의 진행방향·내용 등 수업권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여된 수업권을 남용하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징계대상이 된다"면서 "피고가 내린 징계 3개월 처분은 원고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행위의 내용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해 보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게 보일 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교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업주와 공모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17명 적발

광주고용청, 사법처리 방침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17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자 27명 중 부정수급이 확인된 17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부정수급액 규모는 약 1억1900만원으로, 추가 징수금액을 더해 총 2억54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육아휴직급여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이 비교적 쉽고, 사업주와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수급자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 B씨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거짓으로 육아휴직확인

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B씨에게 급여를 따로 받았다.

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허위로 육아휴직자를 신고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금 12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으로 부정수급의 심자를 선별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중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수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야간 신고 많은 지구대 광주경찰 인력 증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치안수요 적극 대응

광주경찰이 선제적으로 치안수요를 고려한 지구대 근무체계 개편안을 시행한다.

야간 신고가 많은 지구대에 근무 인력을 늘려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첨단·금남·백운·용봉 등 4개 지구대를 5조 3교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5조 3교대는 기존 4조 2교대 근무에 심야 팀(오후 10시~오전 4시)이 추가된 근무 형태로, 근무 인원을 야간에 늘려 신고 집중시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4조 2교대 시야간에 18명이 근무하지만, 5조 3교대로 운영하면 23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로써 이전부터 5조 3교대를 운영하던 상무·수안파출소를 포함해 광주지역에는 총 6곳이 5조 3교대로 운영하게 됐다.

또 치안 수요가 적은 9곳의 파출소는 '주간파출소'로 전환해 감축된 인력은 인근 지구대·파출소로 재배치한다.

주간파출소는 도심에서는 1인, 도심 외곽은 2~3인만 상주하는 파출소로 1인 파출소는 방문민원 업무로, 2~3인 파출소는 주간신고를 처리하고 파출소가 문을 닫는 공휴일과 야간에는 주변 중심지역 관서에서 신고에 대응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개편된 근무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자에 작품비 명목 금품 받은 조선대 교수 검찰 불구속 송치

경찰이 예체능 대학 입시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선대 무용과 교수를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A교수를 대학 제자들을 상대로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 이 대학 임용 전 학원 등에서 "대학 진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교수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자들에게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 조선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용과에서 영향력이 있는 B교수가 지원자 일부에게 '학대의 발전기금을 요구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발전기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원자는 채용에서 최종 탈락하고 A교수가 합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2614-9801